

승려와 격의 없는 대화로 속진 덜어내

역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

◎ 월사 이정귀

천하에 문장가로 이름을 떨쳤던 이정귀(李廷龜, 1564~1635)는 어린 나이에 당대의 문장가 한유(韓愈)의 '남산시(南山詩)'를 차운(次韻)하여 시를 지을 만큼 글재주가 뛰어났던 것으로 전해진다. 나이 14세에 승보시(陞補試)에 장원으로 급제된 후, 증광문과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다. 그는 중국어에 능해 어전통관(御前通官)으로 조정을 대표하여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등 외교 활동에 높은 수완을 발휘하였다.

그가 공을 세운 탁월한 활약상은 바로 명나라 병부주사 정응태(丁應泰)를 포박시킨 일이다. 바로 정응태가 조선을 무고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이는 조선의 입장을 불리하게 하였다. 다시 말해 임금이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은 조선이 명나라를 침범하기 위해 왜병을 끌어들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명나라에 파견된 이정귀는 '무술변무주(戊戌辨誣奏)'를 써서 조선의 무고를 주장함으로써 정응태의 무고가 밝혀져 포박된다. 조선으로서 통쾌한 결말을 얻은 것이니 그의 외교적 수완은 이처럼 출중했다.

특히 선조의 신임을 받았던 그는 조정의 중요한 직책인 병조판서, 예조판서를 거쳐 우의정과 좌의정을 역임하는 등 그의 환로는 순탄하였다. 높은 관직을 두루 거쳤던 그는 늘 임금을 도와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충심을 쏟았고, '글씨로 나라를 빛낸다(以文華國)'는 관인문학을 실천했던 인물이었다. 일찍이 명나라 사람 양지원(梁之垣)은 이정귀의 글을 "호탕하고 표일하지만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아 문장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고, 장유(張維, 1587~1638) 또한 그의 문학적 재능을 칭찬하였다.

한편 그의 출생과 관련된 기이한 일은 <국조인물고>에 "그가 막 태어날 무렵에 호랑이가 문밖에 와서 엎드려 있었으나 사람들이 감히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가 태어나자 호랑이가 떠나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경이롭게 여겼다"고 한다. 일국의 동량이 될 재목은 출생의 기이함도 이처럼 남다른 듯하다.

늘 아속(雅俗)을 포용했던 이정귀는 40여 년간 벼슬을 살았지만 검소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국조인물고>에 세자가 조문을 왔다가 돌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부(李師博)는 삼공(三公)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는 집이 매우 누추하였으

니 그 검소가 숭상할 만하다'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의 학문은 육경(六經)을 근본으로 삼아 정진했으며 <장자>에도 깊이 공부하였다. 언제나 재능과 부귀로 사람을 압도하지 않았던 그는 사람들과 담소할 적마다 모인 사람들을 심취(心醉)하게 만들었다고 하니 소탈하면서도 넉넉한 인품의 소유자였던 듯하고, 말년에는 한가하고 삶을 영위하면서 승려들과 교류했던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그는 승려들과의 시를 통해 교류했는데 이는 그가 선조와 광해군 시대에 유불교유의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는 연유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유불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뤄지기 어려웠다. 이런 분위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 다소 개선되긴 하였지만 승려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확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도 깊은 수행력을 갖춘 승려들은 출중한 문장력을 토대로 문사들과 함께 시를 짓고 시집을 남긴 이들이 많았다. 이들은 이를 높은 사대부들에게 시집의 제문을 받는 등 유불의 교류는 끊어지지 않았다. 특히 문장력이 출중했던 이정귀는 그와 교류했던 승려들의 시권(詩卷)에 차운하는 시를 수편이나 남겼지만 실제로는 교류가 없었던 승려들의 시권에도 글을 써준 사례가 간간히 확인된다. 이런 사례는 그의 '증금강산인쌍익서(贈金剛山人雙翼序)'에서도 확인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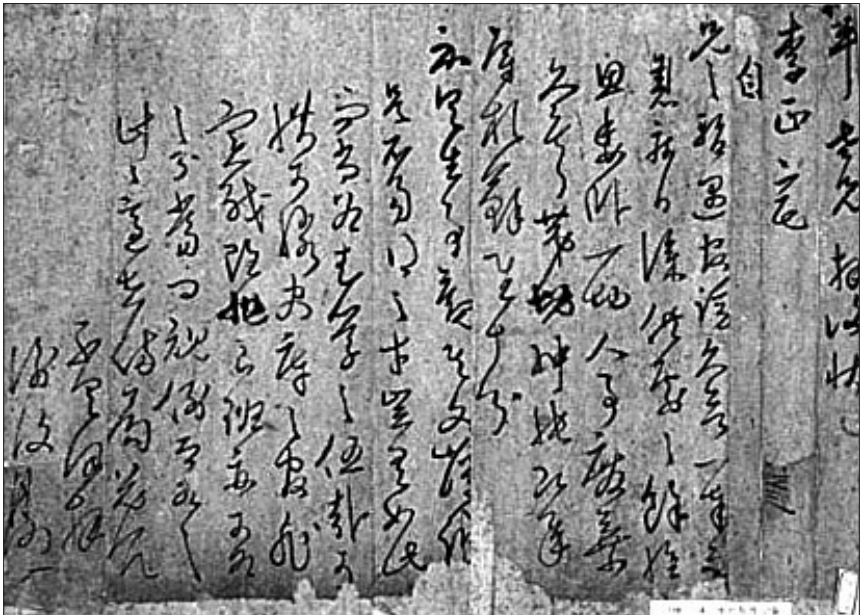
나는 늙을수록 번잡한 것이 싫어 건방진 동네 사람들의 소란이 매우 괴로웠다. 그래서 조정에서 퇴근하면 곧바로 문을 닫고 방문객을 받지 않았다. 시를 지어 달라고 찾아오는 산승(山僧)은 차마 사절할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받게 맞지는 않고 그저 가지고 온 시권(詩卷)에 흥이 일면 시를 적어 주고 흥이 일지 않으면 그냥 돌 뿐이었다. 이런 까닭에 시를 적어 준 승려의 시권은 많지만 승려의 얼굴을 본 경우는 드물었다. 올해 봄에 내가 한가로이 앉아 있는데 누군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으니 글을 물으러 온 학자(學者)였고, 또 누군가 찾아와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으니 승려 쌍익(雙翼)이었다. 사절하여 만나주지는 않고 절구(絶句) 20자(字)를 써서 보내 주었다. 그리고 듣건대 그 승려가 무언가

李廷龜 碑銘 萬曆戊戌海寇再逞 神宗皇帝再遣文武大臣征之 功未半中諛師衆震驚國家被讖萃渙之幾視始 難尤難我 宣祖拔用廷安李公自下大夫進卿亞 副大臣馳奏之奏實公所撰也奏入 天子釋然下 明旨諭人以黜師衆以安邦誼以雪恢復之業蓋國 且先矣於是廷安公之名聞天下 一時士望與上 之寵異之者蓋無與兩既卒賜諡文忠君子謂鄉使 說說得行則望朝極濟之恩不終 國家亡所賴夫安 得今日昔禦侮奔奏並與周家儒雅文字之力可 以揄汗馬折首之功云謹按公諱廷龜字聖微自號 月沙其先有中郎將茂者唐高宗朝從蘇定方平百 濟留任新羅贊藍城後改廷安子孫遂為廷安人後 世為監正判書者累累有馬至本朝文康公石亨以 文章致身歷事 四朝官至府院君世稱三魁李公 於公為高祖侍子渾司憲府掌令贈吏曹判書傳子 頌長不任用壽階二品及公之考縣令公俱贈領議 政夫人如其爵三世推恩皆由公貴縣令薛啓蚤執 善古文辭薦薦公事屢冠多士卒不偶仕終三登縣令

<국조인물고> '이정귀비명'

“ 14세에 승보시 장원 급제 후 조정 대표해 중외교 담당해 말년에 승려와 교류 늘면서 독특한 우정 글로 남기기도 ”

불만스러운 점이 있는 듯 문밖에서 서성 이다가 떠났다 하기에 노쇠한 몸이 나태 하여 공문(空門)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었음을 탄식하였다. (余老益厭閑 頗苦鄉里煩雜 公退輒杜門 却掃山僧之乞詩來者 雖不忍謝遺 而亦不喜接應 只取其詩卷 遇與則題之 不遇則置之已耳 以故題僧卷多而見僧面少 今歲之春 余方燕坐 有叩門聲 問字學也 又有叩門聲 山人雙翼也 謝不能見 書絕句二十字而送之 聞僧徬徨門外 若有不滿意而去 自嘆衰懶



도판 이정귀 글씨

見嘆於空門也) 앞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를 찾아와 시를 지어달라는 승려들이 많았던 듯 한데 이는 이미 이정귀의 글 솜씨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가 금강산에서 수행하는 승려 쌍익과 만난 인연도 처음에는 만나지도 않고 글만 써 주었는데 시권에 글을 받아 간 쌍익 스님이 다시 이정귀를 찾아와 답소를 나누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다고 확인된다. 당시 쌍익 스님은 얼마나 시를 좋아했는지 이정귀의

<동사집(東·集)>에 수록된 시를 줄줄 외을 정도였다. 그가 쌍익 스님을 만난 상세한 과정은 “홀연히 승려 한 사람이 산기슭을 따라 지름길로 곧장 와서 두 손을 모으고 나에게 절하였다. 이에 그 이름을 물었더니 쌍익이었고, 그 거처를 물었다니 풍악(楓嶽)이었다. 바로 지난날 내가 그 시권에 시만 적어주고 얼굴은 보지 않았던 그 사람이었다. 그는 서른이 채 못된 나이에 얼굴이 곱고 기운이 고요하였으며 얘기를 나누어 보니 정신이

맑고 밝았다.(忽見釋子從山麓 徑造叉手而拜 問其名 雙翼也 問其居 楓嶽也 即前日題其卷而不見面者也 年未三十 貌妍氣靜 與之語 靈臺炯炯) 그는 또 천성으로 책을 좋아하여 나의 <동사집(東·集)>에 실린 시들을 줄줄 외는 등 학문하려는 뜻이 자못 있었다(性又嗜書 能誦余東·集諸詩 頗有願學之志)”고 한다. 특히 그와 교류했던 많은 승려들 중에 '정 스님의 시축에 차운하여(次政上人詩軸韻)'가 눈에 띈다. 그 내용은 이렇다.

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질 못해 두름에 부끄러우니(語不驚人愧杜陵) 시축 첫머리에 시 적는 일 내 어찌 할 수 있으리(首題贈我何能) 서로 만나면 도리어 산중의 일을 이야기하느니라(相逢却語山中事) 쓸쓸한 방 한밤의 등잔 심지를 돋우어 다 태운다(挑盡寒釐半夜燈)

정 스님과 그의 만남이 얼마나 흡족했기에 산중에 일 이야기 나누라 등잔 심지를 돋울까. 깊은 밤 등불을 돋우며 나는 이들의 격의 없는 문답은 모든 속진을 덜어내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가 "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질 못해 두름에 부끄러우니"라고 한 것은 두보(杜甫)를 염두에 둔 말이다. 그러므로 이정귀는 글 솜씨도 미흡한 자신이 어찌 정 스님의 시축에 글을 쓰겠느냐는 말이니 그의 겸손함은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류란 그저 변화무쌍할 뿐 오랫동안 변함 없이 자신을 찾아온 이는 승려 일뿐이었다. 그의 '차운해축상운(次允海軸上韻)'에는 무상과 단독한 우정을 함께 드러냈다.

병이 많아 벗들과 떨어져 외로이 사는 길 탄식했다니(索居多病歎離群) 지팡이 짚고 찾아와 준 이는 오직 그대뿐(飛錫相尋獨有君) 다시금 세상 밖 벗들과 친교 맺고 싶노니(更欲托交須世外) 세상의 벗들 우정이란 너무도 변화무쌍해라(世間交道劇紛紛)

이근사거(離群索居)는 벗들과 떨어져 외로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공자의 제자 자하(子夏)가 "내가 벗을 떠나 쓸쓸히 홀로 산지가 오래이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 늙어가는 인생사에서 가장 좋은 건 자신을 찾아주는 벗일 뿐임을 그도 절감한 듯하다. 천하의 문장이 이정귀의 글은 <월사집(月沙集)>에 수록된



박동준 동아시아문화연구원장

봉 원효성사 열반성지 골굴사(혈사) 행

12처 석굴사원 원형복원을 위한 마애여래불 다례제

신라 천년의 이름다운 미소와 섬세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골굴사 마애여래불(보물 제 581호)

산곡과 동천에 무량광의 밝은 빛을 비추며 기적을 행하던 영험한 신앙의 대상이었던 골굴사 마애여래불의 가피와 기적을 찬탄하고 불자들이 직접 공양을 올리는 의식인 육법공양 다례제를 봉행합니다.

이번 다례제는 원효성사의 마지막 훈이 깃든 골굴사(혈사)에서 열림과 동시에 인도석굴의 정통성을 계승한 국내 유일 12처 석굴사원의 원형 복원을 알리는 역사적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공양의 공덕을 통해서 불자님과 불자님 가정에 마애여래불의 이적과 성취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이번 다례제는 경주지역 불교문화의 한 장을 형성하고, 골굴사와 마애여래불의 신앙과 역사 문화적 가치를 고양시킬 것입니다.

많은 대중들의 동참으로 한해의 평안과 행복,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이번 다례제에 동참하시어 수승공덕 성취하시길 발원합니다.

◆상주 기도안내 : 원효성사의 열반성지인 골굴사에서 상주하며, 기적과 치유의 신비를 나누던 마애여래불전에 스님들과 함께 백일기도, 천일기도를 가행정진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일시 : 불기 2660년(2016) 3월 26일 오전 10시
장소 : 골굴사 대적광전 문의 : 054-744-1689
내용 : 마애여래불 다례제 - 육법공양 / 대적광전 개금불사 회향 점안식 / 진달래 화전 템플스테이

원효성사 열반성지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혈사) 주지 적운 합장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 ◆설치가격 : 2,250,000원
- 大出力 믹싱앰프
- 법당전용 스피커
 - 250W
 - 350W
 -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